

소상공인 절반 “확진자 우려되지만 ‘위드 코로나’ 불가피”

소상공인 80%, 위드코로나 ‘긍정’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등 시급 소상공인 전용 소득보장보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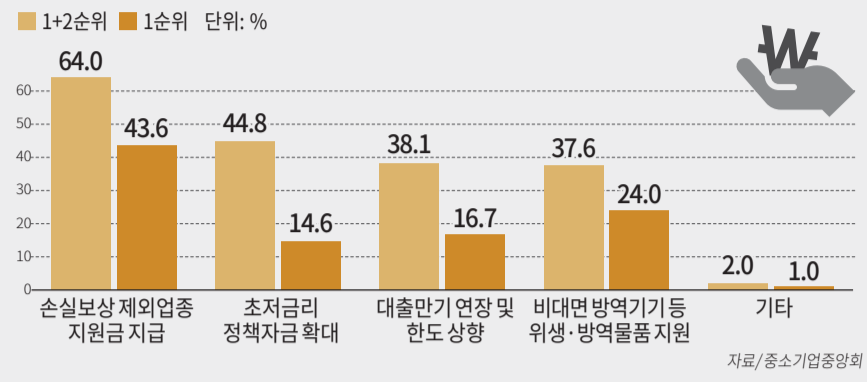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은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으로 코로나19 이전 매출(월 기준)에 비해 ‘25% 미만’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10곳 중 5곳은 확진자 급증 우려에도 생업 유지를 위해선 위드 코로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위드 코로나 1차 개편’ 적용 시기는 이달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6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내놓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62.4%가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을 통한 매출 회복을 ‘25% 미만’으로 예상했다. ‘20% 이상~50% 미만’은 20.2%였다.

위드 코로나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00% 회복할 것’이란 답변은 3.2%에 그쳤다.

아울러 58.7%는 위드 코로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크게 우려되지 않으며, 위드 코로나는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22.1%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 10곳 가운데 8곳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될 경우 필요한 조치로는 ▲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부분적으로 제한’ (40.1%)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복귀’ (28.7%) ▲ ‘현 위드 코로나 방침 유지’ (28.2%)의 순으로 많았다.

소상공인 10곳 중 4곳(39.3%)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 외에 별도의 조치를 함께 ‘시행 중’ (27.9%)이거나 ‘시행할 계획’ (11.4%)이

라고 답했다.

위드 코로나시대에 가장 필요한(1순위+2순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 (64.0%),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44.8%), ‘대출만기 연장 및 한도 상향’ (38.1%) 등의 순이었다.

응답 소상공인의 대다수인 92.8%는 연말 송년회 시즌은 11~12월 손님 예약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절반을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람을 추가로 구할 계획인 소상공인은 21.2%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듭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만큼, 위드 코로나 시행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위드 코로나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경영 안정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수로는 전체의 93.3%, 종사자로는 43.6%를 각각 차지

하며 우리 경제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소득보장보험 신설, 소상공인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21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 한 주 제발표에서 “코로나19가 지속·확산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보존 문제 발생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소득보장보험’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수석연구원은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등에 편입되지 못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사내벤처 육성 기업 14곳 추가 선정

보유 역량·계획 구체성 평가 사업화자금 최대 1억 지원

삼성생명, LS일렉트릭 등 14개사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에 추가로 선정됐다. 9일 중소기업본부에 따르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은 총 96개사로 늘었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에는 총 28개 기업이 신청해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사내벤처 육성 보유 역량과 사업계획 구체성을 중점 평가해 선정했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재직경력을 기반으로 분사한 사내벤처팀 또는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업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내벤처팀 또는 창업한지 3년 이내의 분사창업기업을 자체 발굴해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99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이번 운영기업 14개사를 추가 선정해 향후 발굴수요 확대

를 통한 사내벤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운영기업이 추천한 기업들을 평가해 선정된 기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주관기관과 연계해 제품화와 전략마케팅 등 본격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는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삼성전자, 우리금융, 포스코 등을 비롯해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SK매직, 아마존 입점... 글로벌 공략 본격화

항균 방수 비데 2종 ‘1호 상품’

SK매직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입점하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선다.

9일 SK매직에 따르면 첫 제품으로 ‘항균 방수 비데’ 2종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덕션 등을 잇따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항균 방수 비데’ 2종은 국내 최고사

양의 제품으로 최고 방수 등급인 IPX6 등급을 적용, 집에서도 손쉽게 안전하게 물 세척이 가능하다. 또 버튼 방식의 ‘이지 착탈 구조’로 설치가 누구나 손쉽게 분리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구석 구석 세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900W의 고성능 히터를 탑재해 추운 지역에서도 온수를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차별화된 기능과 편의성도 갖췄다. /김승호 기자

기보-캠코, 중소기업 재기지원 업무 협약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지원 협력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8일 부산 문현동 캠코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운영하는 재기지원 사업을 상호 연계해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재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와 캠코는 재도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보의 재기지원보증과 캠코의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각각 지원하는데 협력기로 하고,



기술보증기금 김영갑 이사(오른쪽)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김귀수 이사가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단계별 협력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 김영갑 이사(오른쪽)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김귀수 이사가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범양냉방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귀뚜라미그룹 주력 계열사인 귀뚜라미, 귀뚜라미범양냉방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주관한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각각 6년, 14년 연속으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9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은 품질경영을 통한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술력과 산업경쟁력을 향상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귀뚜라미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보일러 기술 개발과 대중화에 매진하며 세계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4개월 만에 해외여행상품 재개

터키 특가상품 9000여건 주문

홈쇼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해외여행상품 판매에 다시 나섰다.

홈쇼핑은 4개월만에 해외여행 상품 재개를 기념해 ‘터키 7박8일 패키지’ 상품을 지난 6일 9만8000원 특가로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항공료, 가이드 경비 등 일부를 제외한 전일정 호텔숙박, 전일정 식사 및 관광비용, 전용차량 등을 포함해 가격적인 조건으로 내놨다. 이에 따라 9000여 건에 달하는 주문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홈쇼핑이 방송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아울러 ‘터키 패키지’ 상품을 시



작으로 트래블 버블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여행 상품 편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유럽 BEST 특집전’을 방송한다. 유럽의 인기 여행지 5개를 엄선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2시간 동안 선보인다. 해당 방송에서는 현금 경품, 사별백 추첨 응모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홈쇼핑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협정 국가 중심으로 방송 횟수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끝 불기소 /사진 뉴스스
▲ ‘요소수 대란’에 중고나라 등 판매사 기 기승... 신고 44건

▲ 내부정보 활용 ‘3기신도시 투기’ LH 직원 무죄선고
▲ 소방·구급차 멈추지 않는다... 전국서 요소수 195통 기부



▲ “국내판매 화장품 10개 인체유해 우려 성분 검출... 기준 필요” /사진 뉴스스
▲ SK 입사지원자 1600여명 개인정보 유출... “머리속여 사과”